

'동양사상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

김종회 의원 '오해와 편견 깨는 진리의 향연' 2강 성료
"세종대왕,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민본국가로 이끌어
성리학, 사농공상 등 직업의 귀천 가린 바 없는 학문"



맛, 신체, 감정 등 다양한 사제를 흥미롭게 소개했다. 시금치를 먹으면 간에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담석이 생길 수 있는데 무를 같이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다면서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주관주의 학문인 동양사상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이라며 음양에서 비롯된 오행(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소리와 냄새,

"동양사상 특강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청강하고, '앙코르'를 연발하며 2시간이 넘는 긴 강의를 자리를 뜨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이 끝까지 귀 기울이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15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의 '오해와 편견을 깨는 60분짜리 통쾌한 진리의 향연' 2강을 지켜본 손 모씨(4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를 비롯한 참석자

들의 이구동성이다. '잘못 알고 있는 동양사상과 역사를 주제로 펼쳐진 2강은 장병완-유성엽-박광온-김성찬-윤준호-최경환-장정숙 의원과 기관단체장, 일반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조영구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객관적 주관주의 학문인 동양사상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이라며 음양에서 비롯된 오행(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소리와 냄새,

개했다. 김 의원은 "성리학은 그 어느 책에서도 사농공상 등 직업의 귀천을 가린 바 없다"면서 "성리학이 나쁜 학문이 아니라 당리당락과 당파싸움의 도구로 악용한 일부 성리학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앙코르'를 연호하며 연장 강의를 요청해 당초 1시간 예정된 강의를 2시간 이상으로 늘렸으며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동양사상에 대한 뜨거운 학구열을 드러냈다. 마지막 3강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분주의-동북아공동체론'을 주제로 열린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의원, 무주서 의정보고대회

부담면을 시작으로 21일까지 6개 읍·면서 진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달 16일부터 지역구 중 하나인 무주군에서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안호영 의원은 16일 부담면을 시작으로, 17일 설천면·무풍면, 18일 적상면, 21일 무주읍·안성면 등 6개 읍·면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대회를 통해 2018년을 비롯해 그간 의정활동에서 펼친 원내 및 국회활동, 법률 제 개정안 발의,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과 함께, 각 읍·면의 현안 추진사항과 민원 해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은 끝이 없고, 민족도 없다"며 "이번 의정보고대회를 계기로 주민을 자주 찾아 뵙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발짝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안호영 의원은 초선임에도 발족의 의정활동을 통해 3년 연속으로 당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제20대 국회 제2차연도 헌정대상 등 지난해에만 총 6차례의 상을 받았다. 또한 의정활동 2년 6개월여 동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고향기부금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총 44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16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해에도 19건을 대표발의해 3건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무주=전문선기자

"북미협상 속도감 있게 재개... 비핵화 본격 논의 기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신년 브리핑 모두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미 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고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교사사에서 내신 기자단 신년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미 양측 공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북미 간 접촉도 계속되고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간에는 저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물론,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각각에서 전례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제 북미협상이 이뤄진다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와 남북관계,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차 북미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이뤄지면 큰 진전
올해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본격화돼야
한미 공조, 중러 관계 강화... 한일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리면서 "2019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우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와 남북간

협력은 물론,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중·일·러 주변 4국의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물질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일간 현안도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의교와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소통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화재청, 순혜원 투기의혹 부인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문화재 등록, 전문가 현지조사 등에 의해 시행될 뿐"

순혜원(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화재청이 부인했다. 문화재청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이 근대문화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며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SBS는 15일 '8시뉴스'에서 순혜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구역에서 건물 9채를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순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며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순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뉴시스

野 4당, 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야(野)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중사찰 의혹, KT&G 시장 교세 외압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광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를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비원

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장성급 인사기밀 자료 분실 논란 등과 관련된 각 상임위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물론 모든 상임위의 소집요구를 4당이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